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1월 27일(금)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취업자 중 여성 53.1% 차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포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1월 27일(금)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애리

(연락처: 02-3156-7296 /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mailto:aeri2008@kwdimail.re.kr))

보고서 관련 문의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연락처: 02-3156-7130 / 이메일: [kimth@kwdimail.re.kr](mailto:kimth@kwdimail.re.kr))

---

#### <2011 연구보고서>

###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II):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

◎ 연구책임자 : 김태홍 선임연구위원

◎ 분야 : 고용/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경제성장전략과 여성  
일자리(II):서비스분야 일자리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인력 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부문의 여성  
일자리 창출 현황과 전망, 현재 서비스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인력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취업자 구성비가 상당히 낮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일자리 창출률이 낮고, 그 결과 여성고용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사회서비스부문 확충을 통한 여성고용률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농어업과 제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비스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여 왔음.

- OECD 회원국의 경우 서비스업 규모와 여성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추정결과에 의하면 서비스부문 고용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여성고용률이 0.44%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서비스 취업자 비율이 66.7%이고 (15~64세 기준) 여성고용률은 53.1%로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규모가 작음.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등과 같은 국가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 비중에 비해 여성고용률이 높은 국가임. 이에 비해 이탈리아,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은 서비스업 규모에 비해서 여성고용률이 낮은 특징을 보였음.

□ 여성고용률은 전체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구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유형별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유럽연합의 서비스업 고용변화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고용률이 높은 서비스

세부업종은, 보건 및 사회서비스, 교육 등과 같은 돌봄 서비스업 (care service sector),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 환경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업이었음. 관광과 비즈니스여행의 확대로 호텔, 케이터링, 여가 및 오락서비스부문의 일자리도 증가해왔음.

- 또한 공공서비스부문의 고용은 특히 북유럽에서 여성고용률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확대되면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과 동시에, 사회서비스부문 발달유형에 따라 성별 직종격리 및 직종구조도 영향을 받음.
- 특히 돌봄노동(care work)에 대한 수요가 많은 사회서비스부문의 확대는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여성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확대되면 가족돌봄, 가사노동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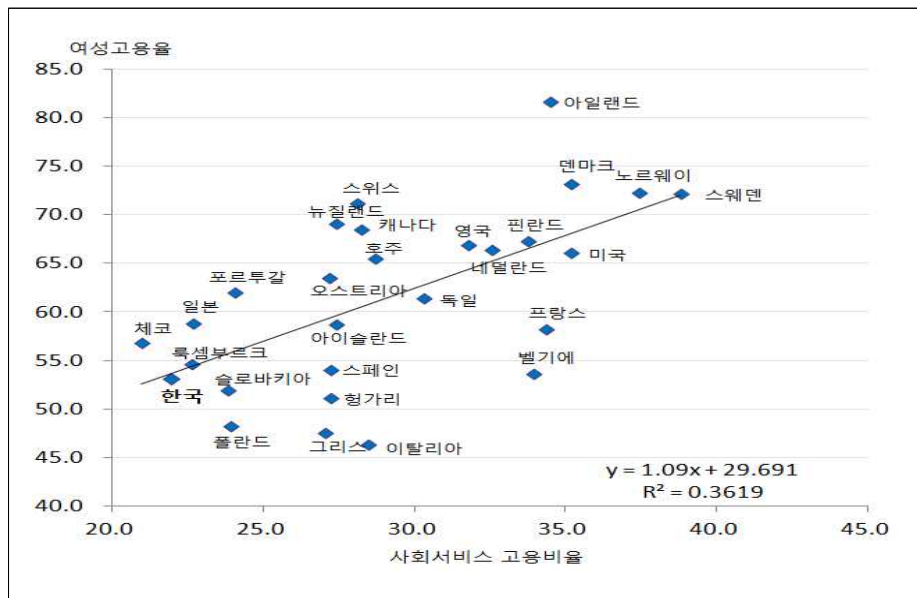
□ OECD 회원국의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율과 여성고용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구성비와 여성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남. 사회서비스부문의 고용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여성고용률이 1.1%포인트 증가하는 관계를 보임.

-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취업자 구성비는 22.0%이고 여성고용률은 53.1%로서,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규모와 여성고용률이 낮은 편에 속함.
- 분석대상인 OECD 28개 회원국의 (취업자 구성비로 본) 사회서비스업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22.0%로 체코 21.0% 다음으로 낮음. 이 외에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구성비가 낮은

국가는 룩셈부르크(22.6%), 일본(22.7%), 슬로바키아(23.8%), 폴란드(23.9%), 포르투갈(24.1%), 그리스(27.0%), 오스트리아(27.2%) 등이었음. 이들 국가 중에서 체코, 일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는 사회서비스업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고용률이 높고,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은 여성고용률이 낮았음.

-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나, 그 중의 하나로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함. 이러한 사회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서, 여성고용률 촉진과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임

(단위: %)



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사회서비스 취업자 비율은 2006년, 여성고용률은 2008년 자료임.

[그림] OECD 회원국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구성비와 여성고용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